산림청, 5월15일까지 175건 58ha최근 10년 연평균은 416건 3865ha신고·접수 단축, 임차헬기 운용 강화  
  
  
  
해외 임차 헬기가 산불을 진화하는 모습. 산림청 제공올들어 5월 15일까지 산불 발생이 통계작성 이후 역대 두번째로 피해가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봄철에 비가 많이 내렸던 영향도 있었지만 산불 신고·접수 시간을 단축하고 CCTV와 헬기 운용 능력을 늘리는 등 산불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농촌에서 영농부산물을 태우다 산불이 난 경우도 많이 줄었다. 산림청은 2024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이어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산불발생은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75건(58ha)으로 1986년 산불통계 작성 이후 역대 2번째로 피해가 적었다. 가장 피해가 적었던 때는 2012년으로 102건(49ha)이었다.최근 10년 평균 산불발생은 한해 416건(3865ha)이었으며 평균에 비해 발생건수는 58%, 피해면적은 98% 감소했다.또 2024년 건조특보 일수당 산불 발생이 0.5건으로 2023년 2.6건에 비해 81% 감소했다. 올해 강수량(341mm)과 비슷한 2016년(354mm)과 비교해도 건수는 43%, 면적은 83%가 줄어들었다.올해 산불이 이처럼 줄어든 것은 주기적으로 비가 내렸고 영농부산물을 태우지 않고 파쇄하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한 것을 원인으로 뽑았다. 산불 주요 원인이었던 소각산불(39건, 22%)이 10년 평균(116건, 28%)보다 많이 줄어든 점이 주목할만하다.또 산불 신고·접수체계를 개선해 신고·접수시간을 3분 38초를 단축했으며 산림관리 유관기관 CCTV 7574대를 활용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산불상황을 판단하고 조치할 수 있었다.올해 처음 도입된 해외 임차헬기(7대) 운영과 유관기관 헬기 공조체계 구축도 주요 원인이다. 특히 강원도는 산불방지센터 영서분소를 개소해 산불대응조직을 확대했고 대구시는 재난업무 전문 산림재해기동대(16명)를 운영했다.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산불 대응을 위해 애써 주신 산불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